

## 〈곰나루 전설〉 속 곰의 욕망과 투신의 의미

강 지 영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곰나루 전설〉에서의 곰, 인간, 곰과 인간의 새끼로 구축된 집단을 가족으로 읽어내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곰을 중심으로 그 욕망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가 떠난 후 곰이 새끼들과 투신하는 장면에 주목하여 곰의 욕망을 해독해 보았다. 세 편의 각편을 대상으로 남자가 떠난 후 새끼들을 꺼안은 채 곧바로 투신하는 곰과 새끼들을 먼저 던지고 투신하는 곰, 새끼들을 보이며 남자를 유인하는 곰으로 나누어 곰의 욕망을 읽어냈다.

세 편 모두 어머니가 자신의 욕망의 좌절로 인해 새끼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가 새끼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새끼는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 어머니와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게 된다. 세 편 모두 새끼를 죽게 만드는 것으로 새끼를 어머니라는 영토에서 탈영토화된 존재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을 읽어냈다. 이러한 해독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개념이 〈곰나루 전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웅녀의 욕망이 가족이 아닌 남자를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세 각편 모두 웅녀가 죽음을 맞는 것으로 웅녀가 남자라는 욕망의 영토에서 탈영토화하여 자기 자신을 구축해가는 재영토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더해서 새끼를 내보이며 남자가 돌아오도록 하려는 시도를 한 각편에서는 남자의 복귀를 기다리는 장면을 배치했다는 데서 가족 구성에 대한 암금의 시선이 다른 두 편의 각편과는 다르게 읽힐 수 있음도 살펴보았다. 새끼가 떨어져 죽는 것을 목격하는 각편에서는 그러한 곰의 행동을 남자라는 욕망의 영토가 자신을 탈영토화 시키는 데서 오는 욕망 충족의 실패로부터의 우울증 또는 침울증에 의한 일종의 자해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족에 대한 곰의 인식의 차이는 욕망을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읽힐 가능성과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일종의 작동으로서 읽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이 연구에서는 전설, 신화, 민담에서의 가족상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지 않

고 곰, 사람, 새끼의 삼각 구도로써 가족이 구축됨을 전제로 하여 욕망, 모신, 결혼 등을 가운데 두고 〈곰나루 전설〉을 신화와 비교 분석하던 기존의 연구에 '가족의 성립 여부'와 '욕망의 작동'이라는 한 시선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주제어 : 곰나루 전설, 들뢰즈, 욕망, 영토화, 탈영토화

## 1. 서론

‘아버지 넘어서기’로 불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정신분석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프로이트를 위시하여 라캉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의 자녀의 욕망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관계로 인해 빚어지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자녀를 그 대척점에 배치하여 아버지에게는 있으나 자녀에게는 없는 것을 자녀가 어떻게 채워나가는냐에 따라 자녀의 욕구 발현과 그에 따른 성격 형성이 달라진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를 중심에 둔 ‘오이디푸스 삼각형’은 부모의 영향권 아래 놓인 자녀에 주목하여 욕망이 어떻게 잉태되고 발현 되는지를 기술한다. 그로써 ‘가족주의는 오이디푸스의 틀에 무의식 전반을 가두어 욕망에서 생산성을 제거’(질 들뢰즈, 펠릭스 고타리, 2018) 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틀 속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만 주목하면 부모도 자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 나타나는 욕망의 발동이 간과될 수 있다.

들뢰즈는 이러한 가족 중심 관점 반대편에서 욕망을 ‘생산’과 연결한다.<sup>1)</sup>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라는 틀 속에서 해석되는 욕망을 부정하며

1) 이를 들뢰즈는 ‘현실을 이중화하게 될 하나의 상상물을 내부적으로 생산한다.’라고 말한다. 현실적 대상의 결핍이 채워질 것을 가정하여 그것을 내적으로 상정해

오이디푸스 삼각 구도의 해체를 선언한 것이다. 욕망이 부모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발현되는 것이라는 ‘오이디푸스 삼각형’이 욕망 발현과 주체화에 절대적 요소가 될 수는 없으며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성인으로서의 욕망 작동 설명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다. 가족 신화에 기반한 ‘오이디푸스 삼각형’만으로는 자녀의 주체화는 물론 성인의 신경증적, 정신병적 문제 나아가 성욕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18)는 관점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들뢰즈가 정신분석학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했던 ‘오이디푸스 삼각형’의 권위에 도전장을 던지며 생성의 관점에서 욕망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sup>2)</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들뢰즈가 가족이라는 틀을 전제하지 않고 욕망의 작동 그 자체에 주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꿈의 태도에 따라 가족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부터 읽어나가 볼 수 있는 <곰나루 전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곰나루 전설>에서는 꿈과 인간 그리고 그들의 자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꿈과 인간의 교혼을 가족 형성의 시초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꿈의 욕망 작동 및 주체화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sup>3)</sup>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꿈과 인간의 교혼을 꿈이 가족의 형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본다. 가족이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정신분석학에서 주목하는 오이디푸스의 삼각형 속 자녀가 아닌, 암곰의 욕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신화는 가족의 개념이 생성되기 이전의 이야기다. 이는 부부 또는 부

---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 2) 욕망의 작동을 가족 내에서 보는지 가족 외에서 보는지에 따라 욕망이 다르게 읽힐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하므로 들뢰즈의 연구에 주로 등장하는 자본주의나 분열증 관련 이론은 이 연구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 3) 이 경우 문명과 야만으로 대별해 보는 이러한 설화에서 ‘꿈’의 특징이 간과될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조언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가족’으로 전제하고 살펴보는 시각 자체에 관한 의문 제기를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후행 연구에서 ‘꿈’을 중심으로 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이어가고자 한다.

부와 아이로 구성되는 집단이 신화에서는 오늘날의 가족과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상적 현실과 합리를 넘어서는 신성의 이야기’(강등학 외, 2020)로 상징을 통한 추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신화 속 가족과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일상 생활과 더 밀접한 이야기를 다루는 전설과 민담에서의 가족 개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화에서의 가족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전설과 민담에서는 공동체와 가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신화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곰나루 전설>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암곰이 새끼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암곰의 가족 인식을 먼저 해독해 본다. 이에 기반하여 ‘영토’와 ‘탈영토’ 등의 개념을 주제로 암곰이 욕망의 주체로 서기 위한 영토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암곰의 욕망을 어떻게 발현 또는 좌절시키는지를 해독해<sup>4)</sup> 보도록 한다.

<곰나루 전설>의 앞선 연구는 서사 분석, 장르적 속성 분석,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sup>5)</sup> 염원희(2011)은 ‘인간

- 4) 이러한 시선으로 살펴보면 서사 내에서의 웅녀의 지위를 중심에 두고 <곰나루 전설>과 <봉화산 암곰>, <단군신화>, <어원커 신화>를 하나의 ‘가족’ 개념에서 읽어내려는 시도는 웅녀의 욕망 해독에 있어서는 정지한 접근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현실(1999), 「웅녀, 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화연구』 9, 구비문화학회, 5쪽. 실제 앞선 연구에서는 ‘<곰나루 전설>에서 곰이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은 <단군신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연이 인간에 있어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 되는 전설 시대의 도래’를 말하기도 하였다. ;김혜정(2011), 「〈於野談〉소재 <암곰과 함께 산 인제현(麟蹄縣) 백성> 설화 연구」, 『동양고전연구』 45, 142쪽. 이는 가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곰나루 전설>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 5) 강현규(2005), 「곰, 고마나루, 곰굴, 곰나루 전설 그리고 공주 -어학적, 설화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0,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김균태(2002), 「곰나루 전설의 변이와 의미」, 『설화와 역사』, 집문당. ;김유미(2020), 「한국 설화에 나타난 곰의 문학적 형상화와 여성 <곰나루>와 <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김창현(2021), 「곰나루 설화의 애니미즘적 성격과 지구생태시민주의」, 『한국문화연구』 67. ;김혜정(2011), 「〈於野談〉소재 <암곰과 함께 산 인제현(麟蹄縣) 백성> 설

과 곰의 결연'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신화적인 측면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김혜정(2011),은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에서 어떻게 전설적 측면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해독하기도 하였으며 박성혜(2021)는 곰 설화의 변개에 주목하며 그 속에 담긴 전승자들의 타자 인식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암곰의 욕망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사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를 중심에 둔 고전 서사 연구에서는 프로이트나 라캉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기반으로 부모가 아이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sup>6)</sup>에 주목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연구 서유석(2021)은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에 기반하여 '모친살해'를 주제로 동북아시아의 곰-인간 교환 설화에서의 욕망의 작동 방식을 읽어낸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소외되었던 어머니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워 곰의 자살을 읽어냈다는 데서 학술적 의의를 확보하였으나 가족을 전제로 하여 욕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

화 연구], 『동양고전연구』 45, 143쪽. ;박성혜(2021), 「자식생존형 곰설화에 나타난 타자에 대한 인식」, 『한국학논집』 8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염원희(2011), 「한국 곰 신화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문제」, 『민속학연구』 29, 국립민속박물관. ;오세정, 윤인선(2022), 「지역 설화의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퍼스의 3항성 범주 모델을 활용한 <곰나루 설화> 분석과 개발-」, 『기호학연구』 70, 한국기호학회. ;이장웅(2022), 「곰나루 설화와 백제의 곰 신앙」, 『유라시아 문화』 6, 유라시아문화학회.

6) 고전문학에서는 주로 라캉과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오이디푸스 삼각형'에 기반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서유석(2013),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애도 부재로 인한 자살과 해원을 통한 재생의 새로운 의미-」, 『현대정신분석』 15,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서유석(2021), 「동북아시아 곰-인간 교환설화에 나타나는 모친살해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윤인선(2002), 「버림받은 딸 심청 -바다 공간의 정신분석학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49, 한국언어문학회. ;윤인선(2010a),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세계문화비교연구』 30, 세계문화비교연구학회. ;윤인선(2010b), 「심청의 우울증」, 『현대정신분석』, 12, 한국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윤인선(2016), 「여성 오이디푸스의 환상을 통해 살펴본 심청의 환상과 자살의 의미」, 『현대정신분석』 18,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욕망 작동 방식에 대한 시선을 본 연구와는 확연히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꿈의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꿈이 자녀를 껴안고 물에 뛰어드는 ‘각편 가’와 꿈이 떠나는 남자를 보며 새끼를 던지는 ‘각편 나’와 꿈이 새끼로 남자를 유인하다가 실패하자 새끼를 물에 던지고 투신하는 ‘각편 다’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영토성과 탈영토성을 중심으로 꿈의 욕망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상기 이본을 크게 새끼와 함께 투신하는 경우와 새끼를 분리해서 던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이를 위해 떠나는 남자를 붙들기 위해 암곰이 자식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가운데 두고 가족에 대한 암곰의 의식을 먼저 읽어낸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의식을 통해 암곰의 욕망 발현을 무엇을 주축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를 해독해 본다. 가족 정립에 대한 암곰의 인식에 따라 암곰의 욕망 발현 및 주체화의 기틀로서의 ‘영토’가 남자 또는 사냥꾼이 될 수 있음을 읽어낸다. 여기에서 나아가 <곰나루 전설> 각편에 가족을 보는 신화적 측면과 전설적 측면의 중간 단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읽어내 보고자 한다.

## II. 자식과 함께 물로 뛰어드는 꿈에 깃든 욕망

암곰과 남자를 주요 등장인물로 하는 <곰나루 전설>은 암곰이 남자를 굴에 데려와 가두어 함께 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암곰은 남자의 자식을 낳게 된다. 자식이 생긴 후 남자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여 동굴 입구를 열어둔다. 그러자 남자는 동굴을 탈출해 암곰을 벗어나고 남자의 탈출을 알게 된 암곰은 남자를 찾으러 간다. 남자를 붙들어

---

7) 자녀의 욕망 작동과 관련하여서는 강지영(2023)이 2023년 12월 비교문화회의 발표문과 관련 연구를 통해 상론하였다.

두기 위한 암곰의 행동이 묘사된 후 남자를 잃은 암곰이 물에 뛰어드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새끼가 태어난 각편의 경우 암곰이 물에 뛰어드는 것은 자식과 함께 뛰어드는 것과 남자를 붙들어 두기 위해 자식을 먼저 강에 던지는 것으로 나뉜다. 이 장에서는 남자가 떠나려 할 때 곰이 자식을 끌어안고 물로 뛰어드는 각편을 중심으로 곰에게 갖든 욕망이 무엇을 주축으로 작동되는지 살펴본다.

공주 입구 금강에 ‘웅진’이라는 못이 있다. 근처 연미산에 커다란 암곰이 살았다. 짝짓기를 위해 수컷을 기다리다가 하루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굴로 데려와 음식을 먹였다. 곰이 남자를 가두어 두고 매일 먹을 것을 구해 주었다. 1년이 지나 곰이 새끼를 낳았는데 반신이 곰이었다. 새끼를 낳았으므로 남자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곰은 동굴 입구를 더 이상 막아두지 않은 채 먹거리를 구하러 나갔다. 그 사이 나그네는 굴을 빠져나왔고 웅진에 이르러 배에 몸을 실었다. 나그네가 도망가는 것을 발견한 곰이 나그네를 향해 돌아오라는 손짓을 보냈으나 나그네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곰은 슬픔에 잠겨 새끼와 함께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웅진(熊津)’은 이러한 이야기에서 유래한 지명이다.<sup>8)</sup>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校友會(1935), 『忠南鄉土誌』, 京人文化社, 14쪽.)

먼저 ‘새끼를 낳았기에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암곰이 보는 ‘가족’의 개념을 재독해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으로 설정된 삼각 구도 안에서는 자녀는 아버지를 적대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주체로 서게 된다고 본다.<sup>9)</sup> 아버지의 존

8) 이후 ‘각편 가’로 기술한다.

9) 프로이트, 라강, 멜라니 클라인 등의 정신분석학자들 각자의 관점에서 이 절대적 가족 신화 속에서 오이디푸스를 중심으로 두고 아동의 자아를 논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프로이트는 남근과 관련하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라강은 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나누어 이른바 아버지 넘어서기라 할 수

재를 넘어서야 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욕망 작동의 중심에 둬으로써 욕망의 작동 나아가 주체의 성립에 있어 가족이라는 범주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형성이 주체의 성립과 욕망의 작동에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그들 자신이 가족을 형성하고 있음에 동의하며 그들 스스로 가족이 가족 내 역할이 정해진 집단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욕망의 작동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굴 탈출이라는 남자의 행동과 그를 붙들고자 하는 암곰의 행동은 부모의 자리를 중심으로 자녀의 욕망을 주로 다루는 ‘오이디푸스 삼각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모의 욕망을 보여준다. 자녀의 욕망이 발현되게 만드는 대상으로서 가족 내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부모가 욕망의 주체로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각편 가’에서는 곰과 인간은 새끼를 돌봄의 대상으로서 대하고 있지 않다. 물론 곰이 ‘새끼를 낳았기에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서 새끼의 존재로 인한 가족의 성립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지는 남자가 동굴을 떠나버리는 서사로 인해 그들의 가족 신화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비치게 된다. 즉, 암곰이 새끼를 출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가족

---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상징계의 질서로 다룬바 있으며 멜라니 클라인은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의 젖가슴과 아이의 자아를 다루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보는 세 시선은 동일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가족’이라는 범주가 확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들뢰즈는 가족을 ‘자율적 형상’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여 앞선 정신분석학자들이 일종의 ‘가족 신화’를 가운데 두고 한 분석에 관하여 ‘가족이 하나의 소유주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김재인 옮김(2018), 『안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3쇄, 177쪽. 관련 논의는 줄리아 크리스테바, 박선영 역(2006),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성: 멜라니 클라인』, 아난케. ;자크 라캉, 홍준기, 이종영, 조형준, 김대진 공역(2019), 『에크리』, 새물결. ;자크 알랭 밀레, 맹정현 역(2008),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박찬부 역(2019),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에서 상론한다.

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족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오이디푸스 삼각형’에 기반한 자녀의 욕망 발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고 자기를 생산, 진보시키며 자신을 기입하는’(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18)<sup>10)</sup> 존재로서의 용녀의 욕망 또한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는 잉태와 함께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진다.<sup>11)</sup> ‘각편 가’에서의 곰은 남자를 붙들기 위해 자녀를 던지는 이상 행동을 보인다. ‘각편 가’는 남자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자식과 함께 투신하는 어미의 욕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남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본래의 영토에서 떨어져 나와 탈영토화된 후 고유의 영토성을 구축해가는 재영토화의 과정에서 욕망이 발현되고, 이것이 주체의 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들뢰즈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성립을 전제로 가족 간 ‘관계 설정’에 중심을 둔 관점과 차이를 보이는

---

10) 들뢰즈는 절대적 힘으로 대변되는 아버지와의 끝없는 싸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 정신분석학적 ‘욕망’을 부정한다. 이를 위해 들뢰즈는 이론의 중심에 놓인 ‘오이디푸스 삼각형이란 없다.’라는 선언을 한다.

11) 라캉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어머니 옆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며 이후 끝없는 결핍감과 속에서 아버지와 투쟁을 벌이며 욕망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가족 신화에 바탕한 분석은 유아기에서의 경험이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인정받아 왔다. 그러는 한편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지배적인 욕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단정함으로써 성인이 되어 형성된 욕망 발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멜라니 클라인은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멸절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무의식적 환상 속에서 젖을 주는 어머니의 가슴을 무의식적으로 끝없이 공격하며 시기하게 된다고 본다. 그 불안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젖을 제공해주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를 미워한 자신을 인지하면서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에서 뒤로 물러나 있던 어머니의 존재를 전면에 꺼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신분석학의 지평을 열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어머니와 자녀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이라는 점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삼각 구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에서 알 수 있듯 젖을 물리는 어머니에게는 아이를 먹고 살리고 자 하는 본능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곰나루 설화>을 재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되어 줄 수 있다.

‘각편 가’에서 어미는 새끼를 안고 함께 투신한다. 이로써 어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새끼를 어머니라는 영토에서 분리되지 않은 대상으로 결속시켜 놓게 된다. 새끼는 출산과 함께 어머니로부터 신체적으로 분리된다. 어미를 새끼를 배출한 영토라고 본다면 새끼는 어머니의 몸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탈영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끼의 몸은 어미라는 영토의 권역 말하자면 보살핌 속에서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오가며 자신을 재영토화하여 독립된 존재로 서야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03)<sup>12)</sup> 한다.

절단, 단절 등을 통한 탈코드화 말하자면, 기존의 땅을 벗어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탈영토화는 그 이후 ‘내부 환경 속에서 재영토화’(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03)를 가져야 주체가 될 수 있다. ‘각편 가’에서의 어미는 자신의 좌절된 욕망 앞에 새끼와 함께 물에 뛰어드는 선택을 한다. 이로써 암곰은 물리적으로 탈영토화된 존재로서의 새끼의 탈영토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새끼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귀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새끼를 어머니에게 결속시켜버린다.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 자녀라는 가족 구도의 삼각형이 성립되지 못하게 한다. 그에 따라 자녀는 어머니에게 부속된 일종의 잉여물로 남게 되고 가족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가족이라는 기반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곰의 욕망 발현은 남자와 새끼들로 구성된 가족이 아닌 남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암곰이 자신의 욕망 발현을 위한 영토로 남자를 택하였고 남자의 떠남에 의해 남자로부터 비자발적인 이탈, 말하자면 탈영토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남자가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손짓을 보내고 뒤이어 새끼와 함께 물에 몸을 던짐으로써 곰은 남자로부터의 탈영토화

12) 이를 들뢰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외부와의 우연적 관계 속에 내놓게 되는 내부 환경이 많을수록 탈영토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접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이를 들뢰즈는 탈코드화, 탈영토화로 본다.

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탈영토화는 혼란과 무질서의 일시적 소강상태인 재영토화로 통합되어야 주체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서사가 죽음으로 일단락된다. 그에 따라 곰이 선택한 죽음이라는 코드는 남자로부터의 정신적 결속에서 벗어나 욕망의 주체로서야 하는 암곰의 재영토화 실패를 보여주게 된다.

남자를 붙들어 두고자 하는 곰의 욕망은 무조건적이다. 암곰은 새끼와 함께 물에 뛰어들으로써 새끼를 자신의 영토에서 탈영토화 시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끼는 어미라는 지층을 벗어난 하나의 유기체로 그만의 영토성을 갖추어야 욕망의 주체로 설 수 있다.<sup>13)</sup>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암곰이 새끼와 함께 죽음으로써 새끼는 암곰의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하여 새끼들은 곰의 몸에서 분리되지 못한 잉여물이 되어 놓이게 된다.

‘각편 가’는 남자의 행동이 곰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 변이를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탈코드화로 곰은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였다. 극단적 상황에서 새끼를 껴안고 죽은 곰의 모습은 곰이 새끼를 독립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분리되지 않은 곰과 새끼는 남자를 원하는 하나의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 재영토화 실패의 코드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재영토화의 실패는 암곰의 욕망이 가족이 아닌 남자를 중심에 두고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과 암곰의 교혼에서 암곰이 토템으로 성립되어 최초의 어머니 형상을 보인다’(서유석, 2021)라고 한, 돌봄에 기반한 가족 성립을 전제로 욕망을 읽어낸 앞선 연구의 시선과 대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암곰의 욕망 작동이 가족이 아닌 남자라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읽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웅녀의 욕망이 가족 내의 관계가 아닌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 관계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으며 웅녀의 죽음을 통해 그 욕망의 좌절을 해석하는 이러한 해독은 ‘생

---

13) 물론 자연이라는 거대한 범주 속에서는 이 또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산 신'으로서의 웅녀가 <곰나루 전설>에서 지위를 잃는 것이 신화와 전설에 따른 웅녀의 다른 수용이라는 장르적 구분 기준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I. 자식을 내던지며 남자를 잡고자 하는 꿈에 깃든 욕망

#### 1. 새끼를 던지고 투신하는 꿈

동굴을 탈출하는 남자를 붙잡기 위해 자식을 내던지는 '각편 나'를 살펴본다. '각편 나'에서는 가족 형성에 대한 꿈의 인식을 전제로 하여 새끼를 던지는 어머니와 던져지는 새끼 주목하여 꿈의 욕망을 읽고자 한다. 경계는 다음과 같다.

공주읍 서쪽에 '웅진'이라는 나무가 있다. 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사냥꾼이 암곰이 자는 것을 발견하고 활을 쏘려 했으나 불쌍해서 하지 못했다. 잠에서 깬 곰이 사냥꾼을 붙잡아 연미산에 있는 동굴로 데려가 2년을 함께 살았다. 둘 사이에 세 명의 자식이 태어났다. 곰은 남자를 신뢰하고 밖으로 나갈 때 더 이상 입구를 막지 않았다. 남자는 굴을 빠져나와 고깃배를 타고 도망갔다. 이를 본 곰이 자식 셋을 금강에 던지며 남자를 바라보았으나 남자는 슬피하지 않았다. 그러자 곰은 슬픈 소리를 지르며 강에 몸을 던졌다. 이야기가가 퍼져 백제왕에게까지 알려졌다. 왕이 관리를 파견하여 공을 위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후 배가 뒤집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없어졌다. 이런 연유로 '웅진'이 유래되었다.<sup>14)</sup>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校友會(1935), 『忠南鄉土誌』, 京人文化社, 29쪽.)

---

14) 이후 '각편 나'로 기술한다.

어미는 사냥꾼을 동굴 속에 가두는 것으로 사냥꾼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않는다. 이 불안은 새끼의 탄생을 통해 사라지는 듯 비친다. 실제로 곰은 출산 후 동굴 문을 열어둠으로써 사냥꾼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대한 죄책감(프랭크 씨머즈, 2004)<sup>15)</sup>을 덜어낸다. 새끼들의 탄생을 계기로 문을 열어두는 것을 통해 애정의 대상이었던 남자에 대한 의심을 소거하여 사냥꾼에게서 느꼈던 불안과 안정이라는 분열된 감정을 통합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된 듯 보였던 곰의 감정은 사냥꾼이 떠남으로써 다시 분열되게 된다. 새끼들을 담보로 붙들어 둔 사냥꾼에 대한 불안을 곰은 새끼를 던지는 것으로 상쇄하려 한다. 이때 새끼들은 사냥꾼을 붙들어 두기 위한 수단이자 곰의 불안 소거를 위한 대상이 되어 놓인다. 새끼를 물에 던지는 이 기계적 작동은 곰이 남자에 대한 자신의 욕망에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끼를 던지는 곰의 행동의 기저에는 곰이 넘어서지 못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의 결핍에 따른 욕망이 깃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동일성 속에서 탄생한 무의식이라는 고아가’(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18), 사냥꾼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사에서는 남자를 가지고자 하는 곰의 집요한 욕망만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욕망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해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작동’(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김재인 옮김, 2018)<sup>16)</sup>하

---

15)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공격의 대상에게서(멜라니 클라인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기반하여 이를 시기심으로 해석한다) 적의(敵意)와 의심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을 느끼면서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기도 한다.

16)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는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의 cogito 즉 ‘생각한다.’에서 이 물음 속에서 부모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욕망을 가족 구도를 벗어난 욕망을 말한다. 나아가 들뢰즈는 ‘오이디푸스적 관념을 매개로 아이를 그 속에 넣고 욕망을 보편의 틀에 가두어 버릴 경우 본원적, 억압, 집단 무의식의 메커니즘 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곰의 경우 통상의 어미가 보여야 할 모정에 기반한 돌봄을 행하지 않는다. 이는 그 자체로 이 이야기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의 분석 틀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꿈의 욕망 작동 과정에 이어 강에 던져진 새끼들이 꿈에 계서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해 본다. 꿈은 사냥꾼 붙들기 위해 아이를 강에 던진다. 앞서 꿈이 남자를 잃고 슬픔에 빠져 새끼들과 함께 투신한 것과 달리 이 이야기에서는 새끼들이 남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미에게 종속되어 있던<sup>17)</sup> 새끼가 강으로 던져지는 것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새끼들에게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읽어낼 수 있다.

어미인 꿈의 몸을 새끼들의 영토라고 본다면, 새끼들은 ‘자기 고유의 지층 위에 놓인 유기체’(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김재인 옮김, 2003)로서 어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탈영토물’(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03)<sup>18)</sup>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토를 벗어난 탈영토물은 재영토화를 통해 살아남게 되는데 이때 어떤 코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체적 재영토화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각편 나’에서는 앞선 이야기에서와 다르지 않게 새끼 꿈들은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 놓임으로써 재영토화 자체가 작동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각편 나’에서는 새끼들이 던져짐을 통해 어머니와 분리되게 된다. 강으로 던져지는 것은 새끼들이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새끼들이 어머니에게 종속된 존재임을 보여주게 된다. 그에 따라 새끼들을 던지는 암곰의 행위는 사냥꾼의 떠남이라는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해 꿈이 마련한 도주선으로 남겨진다. 사냥꾼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이 도주선은 무용해지게 되고, 꿈은 다음 도주선으로 강에 몸

---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여기에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꿈이 아이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기반으로 판단한 것임을 밝혀둔다.

18) 들뢰즈는 영토, 탈영토, 코드, 도주선 등의 용어로 욕망에서의 ‘작동’을 설명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 책의 3장 「기원전 1만 년-도덕의 지질학」에서 상론한다.

을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 욕망의 대상에 결속되었다가 벗어나는 이와 같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진복을 통해 곰의 욕망 작동은 활성화되는 듯 비친다. 그 과정에서의 곰의 투신은 남자를 자신의 욕망대로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암곰의 좌절 또는 가로막힘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도주선이 되어 나타난다.

‘각편 나’에서는 새끼들을 사냥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곰은 새끼들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만듦으로써 새끼들이 어미로부터 탈영토화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알려준다. 새끼들을 강에 던지는 것은 곰이 자기 자신이라는 영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잉여성을 지닌 것으로서의 새끼들의 몸이 어미의 몸을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각편 가’의 새끼들과 함께 강에 뛰어든 곰은 어미가 새끼들과 함께 투신함으로써 새끼가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편 나’에서는 새끼를 자신에게서 분리하는 ‘던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실체로서의 새끼를 물리적 탈영토물로 인지하고는 있음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새끼를 던져 죽게 함으로써 새끼가 탈영토화 및 탈코드화를 거쳐 영토화를 구축해야 할 존재임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준다. ‘각편 나’에서는 비슷한 열개를 가진 다른 각편<sup>19)</sup>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새끼를 통해 사냥꾼을 돌아서게 하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새끼가 사냥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곰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편 나’에서의 가족에 대한 곰의 개념은 신화적 공동체에 가깝다고 읽어낼 수 있다. 그에 따라 곰의 욕망 작동은 앞선 각편과 마찬가지로 남자를 곰의 욕망을 발현시키는 영토로 배치하여 읽어낼 수 있다.

---

19) 이어지는 논의에서 ‘각편 다’로 기술한다.

새끼를 강에 던져 버린다는 점에서 새끼는 어미의 손에 맡겨진, 어미에 포함된 하나의 기관으로 비칠 여지를 가지게 된다. 남자를 붙잡기 위하여 새끼를 던진다는 것에서 새끼는 어미라는 영토를 벗어나 자신의 영토를 구축해가는 생성성을 갖춘 기관이 아닌, 어미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남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각편 나’에서의 꿈은 새끼를 던져 강에 던지고 자신 또한 강에 뛰어드는 행동을 통해 ‘각편 가’와는 다르게 새끼들의 몸을 인식적 차원에서 분리해 두었다. 하지만 꿈이 새끼를 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각편 가’와 같은 선택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하여 가족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놓이게 된다. 이러한 서사의 전개는 욕망 작동의 중심에 돌봄의 중심으로 한 어미로서의 꿈의 욕망이 아닌, 남자를 가지고자 하는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놓이게 만든다. 그리하여 꿈은 물에 몸을 던지게 되고 그리하여 꿈은 남자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채 남겨지게 된다. 꿈은 생산적 욕망이 작동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재영토화에 실패하게 된다.

## 2. 새끼들로 남자를 유인하고 투신하는 꿈

이 각편과 비슷한 열개를 가졌으나 다음과 같은 변개를 보이는 각편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각편을 ‘각편 다’로 새끼를 던지는 것을 통해 새끼의 몸을 자신과 분리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암곰의 욕망을 살펴본다.

이 나루 언덕 바위굴에 곰이 살았고, 이 나루터에서 곰이 빠져 죽어 ‘곰나루’ 또는 ‘곰아나루’라고 무른다. 옛날 산림이 울창하고 인간과 촌락이 적었던 시대의 일이다. 약초 캐는 남자가 여마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암곰에게 잡혀 굴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곰이 짐승의 고기와 초근을 구해 와 남자에게 먹였다. 밖을 나갈 때는 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 놓아 남자는 어찌할 수 없이 곰과 같이 살게 되었

다.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고 이후 남자를 신뢰한 곰은 밖으로 나가면서 입구를 막지 않게 되었다. 간혀 있지 않게 된 남자는 인간이 그리워 곰은 건너지 못할 강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도망갔다. **곰이 도망가는 남자를 보고는 새끼를 불러와 보이며 남자를 유인하였다.**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강하였다. **실망한 곰은 새끼를 물에 던져 죽이고 자신도 빠져 죽었다.** 어미 곰과 자식 곰이 죽은 후 이 나루는 수심이 깊어져 나루터가 되었다. 나루터가 된 후 바람이 일어 배가 파손되거나 뒤집히는 폐단이 있었다. 사공이 웅신제를 지내 왔는데 공주가 도시가 된 후에는 관에서 제단을 설치하고 웅신제를 연중행사로 지냈다. 지금은 강바닥이 높아져 곰이 살던 굴은 매몰되었고 수심이 얕아져 위험이 없어 웅신제가 폐지되었다.

(공주군지편찬위원회(1957), 『공주군지』, 공주군유도회, 32-33쪽.)

‘각편 다’에서는 새끼를 물에 던지기 전에 남자에게 새끼들을 보여줌으로써 남자가 돌아오도록 유인고 있다. ‘각편 나’에서는 새끼를 곧바로 던져 버리는 것으로 가족 형성에 대한 가능성이 이야기 속에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각편 다’에서는 새끼로 남자를 유인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는 곰이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새끼를 곧바로 강에 던지는 ‘각편 나’에서는 곰이 남자를 갖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면, ‘각편 다’에서는 새끼를 남자에게 보여 남자가 돌아오도록 유인하는 것을 통해 곰이 가족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곰이 남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도주선으로 가족이라는 범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주선은 ‘위험에 대비해 이미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전복을 통해 연합해 둔 안정된 환경’(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03)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도주선이 ‘외부 환경의 변화로 내부 환경에서의 혼란이 일 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연합 기재’(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03)로 무용하게 될 때를 위해 또 다른 도주선

을 마련해 두게 된다. ‘각편 나’에서는 새끼들을 곧바로 강에 던짐으로써 첫 번째의 예비적 측면이 아닌, 두 번째의 대비적 측면의 도주선을 순차적으로 가시화한다. ‘각편 다’에서는 ‘유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꿈이 예비와 대비의 두 측면의 도주선을 모두 마련해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각편 나’와 ‘각편 다’ 모두 새끼들을 남자를 붙들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데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새끼를 본 남자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남자에게 가족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꿈이 예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꿈이 새끼의 목숨을 담보하였다는 것은 새끼를 그들 사이의 매개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새끼로 남자를 유인하는 ‘각편 다’에서의 꿈은 앞서 제시한 이야기에서와 달리 ‘가족 공동체’를 영토회와 탈영토회의 전복과 이어짐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연합된 환경 지대’(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2003)<sup>20</sup>로 두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남자가 돌아서자 꿈은 새끼를 물에 던진다. 이후 자신도 강으로 뛰어든다. ‘각편 나’와 다르지 않게 꿈이 자식을 물리적 실체, 들뢰즈식으로 말하면 유기체로서 몸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새끼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각편 다’에서는 새끼를 먼저 던져 죽음을 목격하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목격’은 꿈이 자신에게 자해를 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욕망 좌절에서 오는 우울증 또는 침울증을 새끼를 물에 던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꿈이 가족이라는 범주를 무의식적을 설정하여 그 속에서의 욕망의 작동을 새끼를 던지는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자를 잃음으로써 생기는 욕

20) 들뢰즈는 ‘동물들이 기호에 의해 구성되고 구분된다고 말하며 보호 지대, 사냥 지대, 중립 지대로 지대를 연합된 환경’으로 기술한 바 있다. 연합된 환경은 일시적 안정 상태를 보이는 일시적 영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꿈은 가족을 그러한 연합된 환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망의 절망이 가져오는 공포를 새끼를 던진다는 자기 파괴 행위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새끼는 곰과 남자 또는 사냥꾼 사이에서 태어나 그들의 관계를 보증하는 징표로 배치되어 있다. 이 장에서 제시한 ‘각편 나’와 ‘각편 다’ 모두 새끼와 분리되어 강에 빠짐으로써 새끼가 물리적으로는 자신과 탈영토화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새끼를 사냥꾼을 붙들어 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암곰이 새끼를 부속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끼를 어미로부터 분리된 생명체로 보았다면 새끼를 강에 던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각편 나’에서는 가족 공동체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 있고 ‘각편 다’에서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는 차이점을 내비침을 읽어낼 수 있다.

####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오이디푸스 삼각형’에서의 결핍이 욕망의 기저에 있다고 보는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 반하여 <곰나루 전설>이 기존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새끼를 물에 던지는 곰의 욕망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곰이 남자 또는 사내를 붙들어 두고 있다가 문을 열어둠으로써 남자가 도망가게 되고 이후 곰이 새끼들과 투신하는 <곰나루 전설>에서 새끼들과 함께 투신하는 곰에 주목하여 욕망을 읽어내 고자 하였다.

<곰나루 전설>에서 곰이 남자를 돌아오게 하려 새끼와 함께 물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돌봄을 전제로 구축되는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 기반하여 남자가 떠난 후 새끼를 껴안고 죽는 곰과 새끼를 남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새끼를 먼저 강에 던지는 곰 이야기를 해석하였다. 곰에게 가족의 개념

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자가 떠난 후 어머니가 새끼를 안고 죽는 ‘각편 가’에서는 어머니가 새끼와 함께 강에 뛰어들으로써 새끼와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영토에서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 입지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암곰의 욕망이 가족이 아닌 남자를 중심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읽어낸 후 죽음에 이른 암곰의 주체화 실패를 해독했다.

두 번째로 새끼를 먼저 주게 한 후 곰이 따라 죽는 각편 두 편을 분석하였다. 곰의 욕망을 새끼를 곧바로 강에 던진 후 곰도 강에 뛰어드는 ‘각편 나’와 새끼로 남자를 유인하려다 실패한 후 새끼를 강에 던지고 자신도 죽는 ‘각편 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편 나’에서는 새끼를 바로 강에 던지는 것으로 곰이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할 뿐 가족을 기반으로 한 욕망 작동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읽어냈다. ‘각편 다’에서는 곰이 새끼 보여주는 것을 통해 남자를 붙들려고 하였다는 데서 가족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해독하였다.

이후 새끼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새끼가 곰에게 귀속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각편 나’와 ‘각편 다’를 분석하였다. ‘각편 나’에서는 곰이 남자의 떠남이라는 환경적 변화로 인한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도주선으로 새끼를 배치시켜 두고 있고 ‘각편 다’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예비함은 물론, 이후에 이어질지 모를 또 다른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도주선으로도 새끼를 배치해 두고 있음을 읽어냈다. 이에 바탕하여 어머니가 온전히 탈영토화 시키지 않은 상태의 새끼를 던져 그 죽음을 목격하는 것으로써 욕망 충족의 실패에서 오는 우울증 또는 침울증을 위한 일종의 자해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족에 대한 곰의 인식의 차이는 욕망을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읽힐 가능성과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일종의 작동으로서 읽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전설, 신화, 민담에서의 가족상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지 않고 곰, 사람, 새끼의 삼각 구도로써 가족이 구축됨을 전제로 하여 욕망, 모신, 결혼 등을 가운데 두고 <곰나루 전설>을 신화와 비교

분석하던 기존의 연구에 ‘가족의 성립’과 ‘욕망의 작동’이라는 한 시선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 참고문헌

- 강등학 외(2020),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 강지영(2023), 「<변강쇠가>와 <설문대전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섬, 모빌리티: 연결과 단절 그리고 교차』, 한국비교문화학회-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63.
- 강현규(2005), 「곰, 고마나루, 곰굴, 곰나루 전설 그리고 공주 -어학적, 설화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0,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47-156.
-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校友會(1935), 『忠南鄉土誌』, 京人文化社.
- 공주군지편찬위원회(1957), 『공주군지』, 공주군유도회.
- 김유미(2020), 「한국 설화에 나타난 곰의 문학적 형상화와 여성 -<곰나루>와 <곰과 함께 산 인제현 백성>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11-142.
- 김균태(2002), 『설화와 역사』, 집문당.
- 김창현(2021), 「곰나루 설화의 애니미즘적 성격과 지구생태시민주의」, 『한국문학연구』 67, 191-218.
- 김혜정(2011), 「《於野談》소재 <암곰과 함께 산 인제현(麟蹄縣) 백성> 설화 연구」, 『동양고전연구』 45, 127-154.
- 박성혜(2021), 「자식생존형 곰설화에 나타난 타자에 대한 인식」, 『한국학논집』 8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01-138.
- 서유석(2013),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 -애도 부재로 인한 자살과 해원을 통한 재생의 새로운 의미-」, 『현대정신분석』 15,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121-145.
- 서유석(2021), 「동북아시아 곰-인간 교혼설화에 나타나는 모친살해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5-40.
- 염원희(2011), 「한국 곰 신화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문제」, 『민속학연구』 29, 국립민속박물관, 29-48.

- 오세정, 윤인선(2022), 「지역 설화의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퍼스의 3  
항성 범주 모델을 활용한 <곰나루 설화> 분석과 개발-」, 『기호학  
연구』 70, 한국기호학회, 61-95.
- 윤인선(2002), 「버림받은 딸 심청」. 『한국언어문학』 49, 한국언어문학회,  
113-139.
- 윤인선(2010a),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바다 공간의 정신분석적 의  
미-」, 『세계문화비교연구』 30, 세계문화비교연구학회, 29-54.
- 윤인선(2010b), 「심청의 우울증」. 『현대정신분석』, 12, 한국 라캉과 현  
대정신분석학회, 89-107.
- 윤인선(2016), 「여성 오이디푸스의 환상을 통해 살펴본 심청의 환상과  
자살의 의미」, 『현대정신분석』 18,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79-113.
- 이장웅(2002), 「곰나루 설화와 백제의 곰 신앙」, 『유라시아 문화』 6, 유  
라시아문화학회, 213-250.
- 자크 라캉, 홍준기, 이종영, 조형준, 김대진 공역(2019), 『에크리』, 새물결.
- 자크 알랭 밀레, 맹정현 역(2008),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 줄리아 크리스테바, 박선영 역(2006), 『정신병, 모친살해, 그리고 창조  
성: 델라니 클라인』, 아난케.
- 조현설(1999), 「웅녀, 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  
문학연구』 9, 구비문학회, 1-20.
-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박찬부 역(2019),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김재인 옮김(2003), 『천 개의 고원』, 새물결.
-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김재인 옮김(2018), 『안티 오이디푸스』, 민  
음사.
- 프랭크 써머즈(2004),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한국심리치료연  
구소.

❖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Bear's Desire and Drowning in the Legend of Gomnaru

Kang, Jiyou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sire of the bear in *The Legend of Gomnaru*,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group comprised bears, humans, and cubs could not be a family. The scenes in which the bear throws herself with his cubs after the man leaves her are analyzed. Three versions of *The Legend of Gomnaru* are used for this analysis. The desires of the bear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bear that immediately throws herself with her cubs after the man leaves; the bear that throws herself after throwing her cubs in the river, and the bear that shows her cubs to the man to make him back and waits for him to come back then throws them into the river and finally drown herself.

In all three versions, the bear recognizes their cubs as independent beings, in that she causes her cubs to die due to the frustration of her desires. The cub comes into existence as a separate entity from the mother through the mother's childbirth, and in all three versions, the mother's death is read as a failure to accept the cub as a deterritorialized entity from the mother's territory. From this, it is clear that the typical family structure consisting of father, mother, and children, does not appear in *The Legend of Gomnaru*. This could mean that the bear's desire is centered on a man, not her family. In all three versions, the

death of the bear shows that she has been deterritorialized from the territory of her desire for a man and has not reached the reterritorialization of building herself. One of the versions showed that the bears attempt to get the man to return by showing the cubs to the man, which suggests that the bear's view of family organization can be read differently from the other two versions. In the version where the bear witnesses the death of her cub, the bear's behavior is interpreted as a kind of self-inflicted harm caused by depression or melancholy due to the failure to fulfill her desires on the man as the territory to reterritorialize herself.

The difference in the bear's perception of the family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reading desire as a way to fill a deficiency, and the possibility of reading it as a kind of operation outside the category of the family. Through this, this study aimed to show a new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family and the operation of the bears' desires to the existing studies that had analyzed *The Legend of Gomnaru* compared with myths.

Keywords: *The Legend of Gomnaru*, Deleuze, Desire, Territorialization, Deterritorialization

■ 논문투고일 : 2024. 01. 10

■ 심사완료일 : 2024. 01. 31

■ 게재확정일 : 2024. 02. 06

